

2010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제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 ☒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800자 내외로 작성할 것.
- ☒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작성하며 제시문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하지 말 것.

수험번호	
성명	

감독관확인

--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문 제

※ <보기>에 등장하는 딤스는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에 답하시오.

- (1)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딤스가 지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시하시오. (400자 내외)
- (2) 제시문 (나)와 (다)에 내포된 공통된 함의(含意)에 대하여 논하시오. (400자 내외)
- (3) 위 (2)에서 논한 함의에 입각하여, 딤스와 같은 학생을 지도하려면 교사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 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000자 내외)

보 기

어린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왁자지껄 떠들면서 자기 외투와 모자를 찾으려고 법석을 부리고 있었지만, 꼬마 딤스는 교실 한 귀퉁이에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두 팔로 자기 가슴을 꼭 움켜잡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 아이는 마치 집으로 간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선생님들은 다른 아이들의 돌아갈 준비를 도와주면서 몰래 딤스를 쳐다보곤 하였다. 이런 일이 날마다 집에 갈 시간만 되면 되풀이되었다.

다른 아이들이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가고 아무도 없을 때 선생님들은 서로 눈짓을 하고 벽 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딤스를 바라보았다. 제인 선생님이 “당신 차례예요”라고 말하며 교실을 나가 버렸다.

“딤스야, 이리 온.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점심 먹을 때가 되었지?”

헤다 선생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하였다. 하지만 딤스는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의 반항은 매우 끈질기고 무서운 것이었다. 헤다 선생님은 다시 딤스의 코트를 들고 “자, 코트 입는 것을 도와줄게” 하며 천천히 다가갔지만 딤스는 벽에다 몸을 잔뜩 기대고서 머리를 두 팔 속에 쿡 처박은 채 본 척도 하지 않았다.

“딤스야, 어서 입어야지. 곧 엄마가 데리러 오실텐데.”

딤스의 어머니는 언제나 늦게 오곤 하였다. 아마도 선생님이 미리 코트와 모자를 입혀놓아 실랑이를 하지 않고도 아이를 조용히 데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헤다 선생님은 딤스 곁에 가만히 앉아서 등을 어루만지며 말을 걸었다.

“딤스야, 어서 집으로 가지 않으려?”

딤스는 맹수처럼 작은 주먹을 휘두르며, 곧 할퀴고 물듯 덤벼들면서 “나 집에 안가” “집에 안가”하고 소리를 질렀다. 딤스는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울곤 하였다.

- 엑슬린(V. M. Axline), 『딤스』에서

(가)

물과 불에는 기(氣)는 있어도 생명(生)은 없고, 풀과 나무에는 생명은 있어도 지각(知)이 없으며, 새와 짐승에는 지각은 있어도 의(義)라는 것은 없다. 인간은 기(氣)도, 생명(生)도, 지각(知)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또 의(義)를 갖추고 있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무릇 인간의 힘은 소(牛)에 미치지 못하고, 달리는 속도는 말(馬)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소나 말 쪽이 인간의 이용 대상이 되는 것은 어째서인가? 그것은 인간은 사회(群)를 구성할 수 있으나, 소나 말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으로써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회적 역할의 구분(分)에 의해서이다. 사회적 역할의 구분은 무엇으로 실행되는가? 그것은 의(義)에 의해서이다. 의(義)로써 사회적 역할을 실행하면 사람들은 화합하게 되고, 화합하면 하나로 통합되고, 하나로 통합되면 힘이 증가하고 힘이 증가하면 강해지고, 강하게 되면 만물(物)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각자의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사는 것, 사계(四季)의 순환에

따라 일을 하고, 만물을 이용하여 천하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 역할의 구분(分)과 각 역할에 따른 의(義)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사회에 사회적 역할의 구분이 없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사회는 혼란해지고, 혼란하면 사람들은 흩어지고, 흩어지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만물을 이길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집을 마련하여 편안하게 살 수 없게 된다. 인간은 잠시라도 예의(禮義)를 저버릴 수 없다는 말은 이것을 가리킨다. 아버이를 잘 섬기는 자를 효(孝)라 하고, 형을 잘 섬기는 자를 제(弟)라고 하며, 윗사람(上)을 잘 섬기는 자를 순(順)이라 하고, 아랫사람(下)을 잘 부리는 자를 군(君)이라 한다.

- 『순자(荀子)』, 왕제(王制)에서

(나)

우리의 언어적 성장과정은 상호 양립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상호 양립성은 상호작용을 하는 두 주체가 모종의 고정되고 완성된 의미를 주고받거나 공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체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에 부합하는 보다 적절한 의미를 찾으려는 점진적인 조절과정을 통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어린이가 새로운 단어를 배워가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가 처음 새로운 단어에 부여하는 의미는 성인의 의도와는 다소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자신이 기대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통하여 의미를 조정해 나아간다. 이와 같은 단어의 의미 조정과정은 아동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단어를 성공적으로 사용한 후에도 자신이 부여한 단어의 의미와 다른 사람이 가진 의미가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많은 경우, 이런 문제는 사전(辭典)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 개인의 어법에 좌우되지 않는 고정된 실체라는 잘못된 생각을 부추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단어의 의미를 습득하게 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그것이 환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전에서는 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른 언어로 이루어진 정의와 사례를 활용하며, 그 정의와 사례들을 해석할 수 있을 때에야 의미습득이 가능하다.

- 글레이저즈펠트(von Glasersfeld)의 의미의 구성에 관한 글에서

(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大成마이맥